

'90年度 에너지 資源政策 方向



國民이 원하는 에너지를 環境에 적합하며 安定的이고 經濟的으로 供給할 수 있는 基盤을 構築한다.

李 元
(動資部 資源開發局長)

1. 에너지 資源政策의 回顧와 展望

가. '80年代의 回顧

우리나라 에너지政策에 있어 지난 '80年代를 回顧해 보면, 初盤의 高油價와 需給 不安이 中盤부터 低油價 및 供給過剩으로 反轉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不安定한 徵候가 나타나고 있어, 에너지週期(Cycle)를 한바퀴 경험한 귀중한 時期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經濟에는 이러한 에너지週期的 영향이 보다 크게 나타나, 前半期에는 『3高 現象』으로 증폭되어 經濟沈滯를 초래했으나 後半期에는 『3低 現象』이 기반이 되어 高度成長의 持續과 黑字經濟로 轉換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기간중 에너지分野에는 석유 및 무연탄위주의 에너지需給構造가 원자력, 유연탄 및 LNG가 추가·확대되면서 에너지源의 多元化가 실현되면서 우리 경제의 石油依存度가 63%에서 49%로 감소되었으며, 石油産業의 資本과 經營이 국제메이저 의존에서 탈피됨과 아울러 原油導入先이 3개국에서 20여개 국으로 확대되었으며, 數日分에 불과하던 石油備蓄도 60일분의 政府備蓄을 포함 80일분으로 擴充

되는 등 에너지自主供給能力이 크게 培養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에너지價格의 下落持續과 國民所得 增大에 따라 에너지 消費가 크게 늘어나고 에너지관련 사업의 公害, 安全 등에 대한 國民의 관심이 고조 되는 등 에너지政策需要는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나. '90年代의 展望

'90年代의 國際에너지環境은 새로운 挑戰과 對應이 지속될 전망이다. 國際石油市場은 非 OPEC 國家들의 供給能力制約, 개발도상국의 工業化와 최근 東歐圈의 開放化 등으로 構造的인 需給 不安要因이 증폭되고 있고, '80年代 中盤 이후 低油價로 소비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된 반면, 에너지消費는 증가추세에 있어, '90年代는 低에너지價格時代가 끝날 것이며, 中盤이후에는 제3의 石油波動을 예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에너지資源部門의 불룩화 및 개방화의 混在現象도 새로운 挑戰으로 나타날 것이다. '92년 EC統合을 계기로 21세기의 環太平洋時代의 도래가 앞당겨 지면서 域內 國家間 에너지資源協力이 긴밀해 질

것이며, 동구권의 개방화 진전에 따라 北方圈國家와의 資源交流도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에너지사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酸性비, 地球溫暖化 등 環境問題에 대한 汎世界的인 관심도 지금보다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90年代 국내에너지의 상황을 전망해 보면,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석유, 가스, 전기 등 高級 에너지에 대한 需要가 急増하고, 깨끗한 環境에 대한 욕구의 증대로 에너지소비에 따른 大氣汚染問題가 크게 부각될 것이며, 環境에 대한 국제적 관심고조로 原電反對, 發電所立地拒否 등 에너지 시설의 기피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국제에너지가격이 상승되면서 에너지 節約意識과 代替에너지開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조망될 것으로 전망된다.

'90年代末 우리나라의 에너지모습은 先進國型으로 정착되고 이러한 모습이 核融合과 같은 제3의 燃料革命이 없는 한 21세기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총에너지수요는 연평균 5%내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현재의 1.7배의 규모가 되고, 1인당 에너지소비와 전기소비는 현재의 西歐水準에 접근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전기, 가스 및 석유를 많이 사용하는 先進國型이 될 것이다.

따라서 '90年代에는 국제에너지시장의 不確實性에 충실히 대비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에너지"를 環境에 적합하며, 安定的이고 經濟的으로 供給할 수 있는 基盤을 構築해야 할 것이다.

2. '90年度 에너지資源政策 方向

금년은 '90年代 先進國型 에너지需給構造定着을 실현하기 위한 元年으로서, 당면한 우리經濟의 難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産業平和를 이룩하기 위한 經濟施策에 부응되도록 에너지政策을 펴고자 한다.

가. 에너지資源의 安定確保 體制의 強化

에너지는 食糧 및 國防과 함께 國家安保의 3大支柱로서 國家安危에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에너지資源의 安定供給 態勢를 완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우선 에너지자원의 自主供給能力을 제고하기 위하여 '90年代 중반 東海岸 가스생산을 목표로 금년중 經濟性을 확인하고, 原子力發電의 國產化를 早期에 이룩하여 國산에너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석유, 유연탄, 우라늄 등 主要에너지의 20~30%를 自主供給할 수 있도록 海外資源開發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예견되는 제3의 石油波動에 대비하는 補完方案으로 원유의 政府備蓄이 60日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石油需要增加에 비례하여 備蓄能力을 확충하며, 主要產油國과의 항구적인 協力體制를 유지하기 위한 官民協助의 石油外交를 강화한다.

아울러 에너지供給設施의 立地와 所要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立地對策을 國土開發計劃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發電所周邊地域 支援制度를 적극 活用하며, 石油事業基金을 에너지분야에 골고루 活用할 수 있도록 적절히 運用해 나간다.

한편, 에너지를 덜쓰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生産하는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環境汚染을 줄이는데도 기여하는 것이므로, 에너지 總消費量의 절반이상을 쓰는 産業 및 輸送部門을 에너지低消費型으로 개편하고, 국민의 에너지節約意識이 이완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産業部門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정보·소프트웨어산업 등 에너지低消費型 尖端産業이 육성되도록 금년부터 '94년까지 총 1조9천억원을 送變電施設에 투자하는등 良質의 電力供給基盤을 조성하며, 알루미늄 精鍊産業 등 에너지多消費産業은 海外로 移轉하거나, 에너지節減效果가 큰 熱併合發電의 자체설치를 유도한다.

輸送部門의 에너지절약과 당면한 交通問題의 해결에 도움이 되게하기 위하여 작년에 제정된 送油管事業法과 서산-천안간의 送油管 建設經驗을 바탕으로 하여, 금년중 서울-인천간 送油管建設에 착수하고 단계적으로 全國規模로 확대한다. 大都市 交通問題 解決策의 일환으로 향후 油類價格의 인하가 가능할 경우에도 乘用車用 油類價格의 인하는 억제할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消費節約運動을 汎國家的인 에너지바르쓰기 운동으로 금년부터 새롭게 전개해 나간다.

나. 에너지産業 體質改善 및 技術開發을 통한 競爭力 提高

에너지산업의 競爭力 確保는 값싸고 질좋은 에너지를 供給하는 기반이 되므로, 업체의 體質改善과 技術向上을 통하여 競爭力이 제고되도록 生産性 向上 및 技術開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國內 石炭産業의 構造調整을 통한 體質強化를 위하여 작년에 착수한 非經濟炭鑛의 廢鑛支援事業을 계속하는 한편, 經濟性 있는 炭鑛에 대하여는 採炭機械化率의 제고로 生産성을 향상시키고 중장기적 生産 安定帶를 제시하여 健全한 育成을 도모한다.

電力産業의 효율적 운영과 關聯産業의 육성을 위하여 原子力 및 유연탄발전소의 標準化와 原電燃料의 核心技術開發基盤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전력산업을 輸出産業으로 육성한다.

또한 開放化趨勢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의 競爭力提高를 위해 국내 石油産業을 國際規模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석유개발,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관련 엔지니어링분야에의 진출 등 綜合에너지産業으로 육성해 나간다.

아울러 에너지산업분야에 대한 研究開發 投資費를 대폭 확대지원해 나가되, 특히 2000년대초까지 국내에너지需要의 3%를 新再生에너지로 보급하는 목표아래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도시폐기물 소각 플랜트 시험건설 등 미래 에너지에 대한 技術開發 投資를 지속한다.

다. 에너지價格의 安定的 管理

에너지價格은 국민의 日常生活은 물론 經濟安定基調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당면한 經濟難局克服에 기여할 수 있도록 安定的으로 管理한다.

國內 石油類價格은 '86년이래 계속 引下해 왔으나, 최근 石油需要가 急增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現行價格基準을 유지해 나가되, 國際油價가 배럴당 18불이상으로 上昇할 경우에는 우선 石油事業基金徵收率 및 關稅率을 下向調整하여 대처하고, 미흡할 경우에는 油價緩衝用 豫備資金을 활용하여 價格을

安定시킨다.

電氣料金は 향후 發電所建設을 위한 막대한 投資所要 및 競爭國家와의 料金水準등을 감안하여, 長期的인 價格安定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되, 비용 상승요인은 우선 韓電의 經營합리화로 흡수하고, 短期利益은 앞으로의 投資財源으로 활용하여 전기요금의 長期 安定化 基盤을 마련한다.

煉炭價格은 금년도 鑛員賃金協商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광원의 임금 인상을 한자리 숫자로 유도하고, 이로 인한 價格引上要因은 政府, 業界, 勤勞者 및 家計가 적정분담하는 원칙아래, 政府는 社會福祉性格의 費用을 부담하고, 業界의 經營合理化와 勤勞者の 賃金上昇自制를 유도하는 한편, 家計가 최소한의 인상요인을 부담토록 하되, 一低所得層에 대해서는 社會保障次元의 별도 대책을 강구한다.

라. 環境改善을 위한 깨끗한 에너지供給의 擴大

에너지의 사용은 불가피하게 大氣汚染을 수반하므로 당면과제인 環境保全에 기여하도록 깨끗한 에너지의 生産 및 普及基盤을 구축한다.

깨끗한 에너지의 生産基盤을 구축하기 위하여 首都圈 發電所의 燃料를 LNG로 대체하고, 石油部門에는 低硫黃輕質油 생산시설 설치를 義務化하여 2000년까지 현재의 施設比率 4%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하며, 原子力發電의 安全性에 대한 弘報強化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서의 인식을 새롭게하는 한편, 가스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LNG의 追加導入을 금년중에 결정하고 引受基地增設을 추진한다.

깨끗한 에너지의 普及基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근 3년간 年평균 25%씩 증가하는 가스소비추세에 맞추어 都市가스普及率을 현재 12%에서 2006년까지 55% 수준으로 높힐 계획으로 總延長 1,318Km의 LNG 全國配管網建設事業計劃을 금년 중에 확정하여 건설에 착수한다.

또한 燃料의 30% 수준이 절감되고 公害減少에도 현저한 효과가 있는 地域暖房 및 熱併合發電事業을 적극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盆唐, 坪村 등 新都市建設地域에 대해서는 입주시기에 맞추어 地域暖房이 완비되도록 하고, 현재 3개 공단에 가동중이며

7개공단에 건설중인 熱併合發電을 전국 65개 공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되,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중에 長期基本計劃을 수립함과 아울러 “集團에너지事業法”의 制定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都心地 煉炭工場의 公害防止를 위하여 시·도별 연탄소비감소에 따른 工場整理, 公害防止施設 強化 및 시외곽 또는 産炭地로의 이전방안을 적극 지원한다.

마. 産業平和의 定着과 地域均衡發展 促進

炭鑛分野의 産業平和를 정착시키고, 地方化時代에 대비한 地域均衡發展이 촉진되도록 資源의 適正配分에 노력한다.

광원 및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石炭産業合理化 施策으로 비교적 순탄했던 炭鑛分野의 産業平和基調가 금년에도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석탄회관, 독서실, 부녀자 부업작업장 등 鑛員의 厚生福祉事業을 확충하고, 광원사택의 신축 및 재개발과 임대아파트의 확보를 통하여 住居環境을 개선하며, 子女學資金 및 塵肺基金의 전액과 産災料의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社會福祉次元에 관심을 기울인다.

에너지자원 관련 投資의 適正配分을 통한 地域均衡發展을 촉진하기 위하여, 먼저 지난 연말에 改正된 “農漁村電化促進法”에 따라 全國土 電化事業의 마지막 부분인 輿地 및 落島地域의 電化事業을 '95년까지 완료하고, 지리적 여건 등으로 불가능한 지역은 太陽光, 風力 또는 自家發電施設을 건설 활용한다.

또한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 관한 法律施行令”을 1/4분기중에 制定하여 發電所 隣近住民의 소득 증대사업 및 의료, 교육, 문화 등 公共事業을 지원하며, 非經濟炭鑛의 廢鑛에 따라 침체되고 있는 産炭地域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석탄 산업에 의존하던 主要産炭地에 鑛工團地를 조성하여 代替産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驛頭貯炭場 整備 및 市街地 運炭道路 擴充 등 주변환경개선을 통한 地域住民의 定住意識이 정착되도록 한다.

이와함께 향후 에너지供給施設 建設時에는 施設立地難을 감안하여 대규모 시설건설과 병행하여 小規模熱源施設을 需要地 隣近에 分散하여 건설한다.

바. 海外資源 確保를 위한 國際活動 強化

대부분을 海外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및 産業原料資源을 安定的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北方圈을 포함한 資源保有國에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점증하는 에너지자원의 海外依存度를 감안하여 海外資源確保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綜合支援體制를 마련하여 “海外資源開發事業法”의 改正을 추진한다.

또한 그동안 침체되었던 海外資源開發이 최근들어 활기를 띠게됨에 따라 海外進出業體에 대한 資金供給을 확대하고, 북방정책과 연계하여 기존 에너지導入先의 일부를 北方圈 國家로 轉換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시베리아 有煙炭 合作開發事業의 진출 등 북방권 국가에 대한 資源協力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자원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국가로서 國際的인 役割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증대하고 있으므로, 資源保有國과의 個別的인 資源協력을 보다 심화해 나가고, 多者國間 協력을 위하여 에너지자원 관련 國際機構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먼 앞날에 대비하여 深海底 및 南極資源開發을 위한 國際協力體制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3. 맺음말

'80年代가 에너지의 安定基盤造成을 위한 年代였다면 '90年代는 不確實한 國際에너지情勢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先進國型 에너지需構造成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年代임을 깊이 인식하여 該元年인 '90年度에는 이를 위한 기반이 다져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지속적인 經濟成長과 快適한 環境造成에 기여하도록 한다.